

## IV. 보험산업 전망

### 1. 주요지표 전망

#### 가. 수입보험료

- FY2006 보험산업은 완만한 내수 회복과 연금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를 중심으로 8.0%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보험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을 통한 경기 회복과 연금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통하여 보험료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식시장 성장의 지속에 따른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 등의 성장과 소비자의 건강 관련 수요의 다변화로 인한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보험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수입보험료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금융시장 불안정, 영업비용 증가 압력 등이 예상되어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FY200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이 보편화되고 변액 및 유니버설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FY2005 대비 8.4% 성장한 66.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의 수익성은 실제신계약비 이연 전환효과와 종신보험 표준신계약비의 예외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수익률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FY2006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확대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 구조의 지속이 예상되어 FY2005 대비 7.2%성장한 27.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의 수익성은 손해율의 안정을 통한 자산운용수익률의 상승 추세가 전망됨.

**<표 IV-1> FY2006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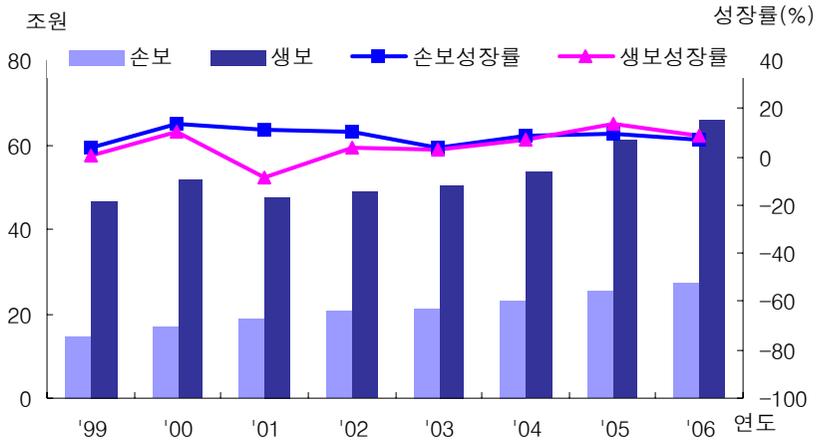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51.7 (10.5)	47.4 (-8.3)	49.1 (3.6)	50.4 (2.7)	53.8 (6.7)	61.0 (13.5)	66.1 (8.4)
손해보험	16.9 (13.8)	18.7 (10.9)	20.6 (10.3)	21.4 (3.7)	23.2 (8.6)	25.5 (9.7)	27.3 (7.2)
전 체	68.6 (11.3)	66.1 (-3.6)	69.7 (5.5)	71.8 (3.0)	77.0 (7.2)	86.5 (12.3)	93.4 (8.0)

주: ( )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임.

- FY2005 보험산업은 완만한 내수 회복과 연금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를 중심으로 8.0%의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산업은 종신보험의 성장률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단체보험도 퇴직보험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통합보험과 방카슈랑스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성장을 포함한 장기손해보험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일반손해보험 또한 성장함에 따라 전년 대비 9.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 나. 보험침투도

- FY2006 보험침투도<sup>4)</sup>는 보험산업의 양호한 성장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내수회복을 통한 경제회복 국면의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보험침투도는 10% 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침투도는 전년도보다 각각 0.1%p 증가한 7.6%, 3.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FY2005 보험침투도의 경우 생명보험은 7.5%, 손해보험은 3.1%,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FY2004에 비해 0.7%p 증가한 10.6%로 추정됨.

4)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나타냄. 2002년 이후의 GDP는 잠정치 또는 전망치임.

<표 IV-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9.9	8.6	8.2	7.0	6.9	7.5	7.6
손해보험	3.2	3.4	3.5	2.9	3.0	3.1	3.2
전 체	13.1	12.0	11.7	9.9	9.9	10.6	10.8

다. 1인당 보험료

- FY2006의 국민 1인당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193만원 정도로 FY2005에 비해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생명보험료는 7.9% 증가하고 손해보험료는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FY2005의 1인당보험료는 179만원 정도로 FY2004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IV-3>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1,099	1,001	1,030	1,053	1,118	1,263	1,363
손해보험	359	394	432	447	483	527	563
전 체	1,458	1,395	1,462	1,500	1,601	1,790	1,926

주: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를 사용함.

## 라. 생·손보 구성비

- 생·손보 구성비(수입보험료 기준)는 전체 보험산업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Y2006에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 FY2006 구성비는 70.8% : 29.2%로 FY2005에 비해 생명보험의 비중이 0.3%p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IV-4> 생·손보 구성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75.4	71.7	70.4	70.2	69.8	70.5	70.8
손해보험	24.6	28.3	29.6	29.8	30.2	29.5	29.2

## 마. 총자산

- FY2006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완만한 성장과 준비금 규모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 증가와 금융환경 불안으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의 상쇄 효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한 324조 2천 억원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은 전년보다 13.0% 증가한 270조 7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53조 5천억원으로 전망됨.

<표 IV-5> FY2006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생명보험	120.7 (9.5)	143.0 (18.5)	164.2 (14.8)	187.4 (14.1)	211.6 (12.9)	239.5 (13.2)	270.7 (13.0)
손해보험	28.1 (6.0)	32.7 (16.7)	35.4 (8.1)	38.8 (9.8)	43.4 (12.0)	49.2 (13.2)	53.5 (8.7)
전 체	148.8 (8.8)	175.7 (18.1)	199.6 (13.6)	226.2 (13.3)	255.0 (12.7)	288.7 (13.2)	324.2 (12.3)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2. 생명보험

### 가.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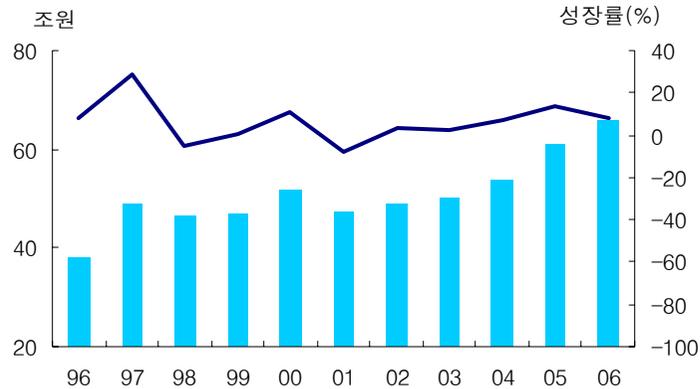
- FY2006 생명보험시장은 전통 보험종목에 대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GDP가 증가하고 내수소비가 진작되는 등 내수경제의 회복이 반영되어 완만한 증가가 전망됨.
  - 2006년은 내수부문이 회복이 되고 은퇴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가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 전망되나, 금융시장 활황에 따른 변액보험판매, 교차판매, 실손형 건강보험, 3차 방카슈랑스의 실시 및 퇴직연금제도의 확산 등이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임.

#### 1) 수입보험료

- FY2006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변액연금 등 생존보험의 성장과 단체보험의 시장 확대에 힘입어 FY2005 대비 8.4%의 완만한 성장을 한 66조 1,07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수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은퇴대비 수요의 증가와 함께 전통보험을 대체하면서 변액보험이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보장성 보험의 성장은 정체될 전망이다.
  -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정되어 있고 실손보장형 건강보험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생존보장 니즈는 연금보험, DI보험 등 소득보장보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FY2005 개인보험 시장은 종신보험과 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소폭 성장에 그친 반면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어온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에 편승한 변액보험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 단체보험도 퇴직보험에 대한 선수요와 퇴직연금신상품효과로 견조한 상승이 전망됨.
- FY2005의 보험시장은 민간소비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금리상승과 함께 주가도 급등하는 배경 하에 변액보험에 대한 열풍이 전통보험을 대체하고 단체퇴직시장의 신상품이 단체보험을 견인하여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IV-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06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그동안 실제신계약비 이연에 따른 이익의 분산효과가 현실화되고, 종신보험에 대한 표준신계약비 예외조항 폐지가 적용되며, 변액보험에 대한 원가공개가 추진되는 등 RAAS 도입과 함께 순이익의 급격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금리상승에 채권평가의 하락과 파생상품평가의 하락은 투자영업 이익을 저하시키고 감독당국의 사업비 인하유도 가능성에 따라 생명보험 산업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표 IV-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330,376	-0.7	133,529	-14.9	463,904	-5.2
FY1999	316,002	-4.3	151,473	13.4	467,554	0.8
FY2000	398,721	26.1	117,817	-22.2	516,538	10.5
FY2001	377,799	-5.2	95,844	-18.7	473,643	-8.3
FY2002	415,493	10.0	75,175	-21.6	490,668	3.6
FY2003	447,161	7.6	56,764	-24.5	503,925	2.7
FY2004	480,140	7.4	57,366	1.1	537,506	6.7
FY2005(E)	537,772	12.0	72,168	25.8	609,940	13.5
FY2006(F)	579,614	7.8	81,458	12.9	661,072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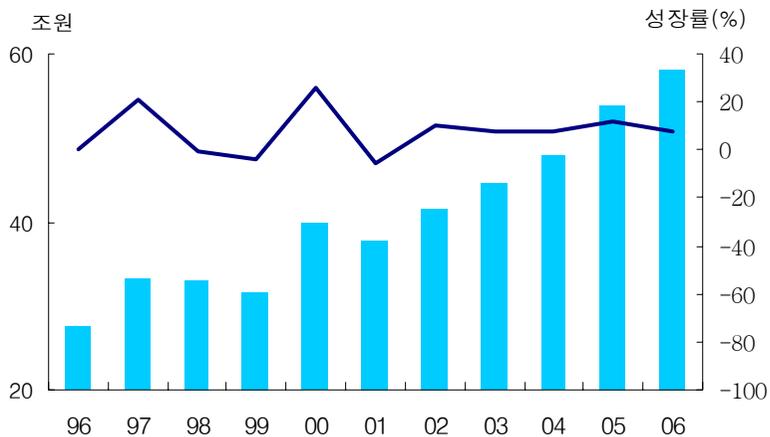
#### 가) 개인보험

- FY2006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내수회복에 따라 변액보험을 포함한 생존보험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8% 증가한 5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2005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시중자금의 간접투자시장으로 유입과 함께 변액연금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특히 변액유니버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53조 8천억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전통종신보험은 2005년 8월말 2.3% 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정체가

지속되고 건강관련 보험도 방카슈랑스 2단계 허용과 실손형 건강보험판매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은 성장률 둔화가 예측됨.

-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보험에서 사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IMF 체제가 시작된 FY1997 20.1% 수준에서 FY2004에는 54.8%까지 증가했던 것이 FY2005에는 52.8%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 지난 4월 순수보장성 제3보험이 금융기관대리점판매가 허용되었으나 6월까지 월평균 3,180억원이 거수되어 지난 분기(1~3월)에 비해 3.4% 증가에 불과했으나, 지난 동기에 비해선 52.7% 성장, 저축성 보험이 강세임.
- 또한 판매신장이 기대되었던 개인실손형 건강보험의 도입도 제도 미비와 수익성불안으로 도입이 늦어져 보장성 보험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림 IV-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lt;표 IV-7&gt;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102,113	-29.7	79,249	18.8	149,014	23.5	330,376	-0.7
FY1999	97,808	-4.2	100,461	26.8	117,813	-20.9	316,082	-4.3
FY2000	108,661	11.1	125,393	24.8	164,667	39.8	398,721	26.1
FY2001	74,955	-31.0	174,334	39.0	128,510	-22.0	377,799	-5.2
FY2002	91,424	22.0	213,677	22.6	110,392	-14.1	415,493	10.0
FY2003	120,375	31.7	231,844	8.5	94,942	-14.0	447,161	7.6
FY2004	131,368	9.1	262,971	13.4	85,801	-9.6	480,140	7.4
FY2005(E)	149,854	14.1	283,782	7.9	104,136	21.4	537,772	12.0
FY2006(F)	170,366	13.7	295,670	4.2	113,577	9.1	579,614	7.8

주: FY2002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 1) 생존보험

○ FY2006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경기호전에 따라 증가된 연금보험 수요가 간접투자자산시장 확대와 맞물리면서 금년대비 13.7% 증가한 17조 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 온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과 은퇴에 대비한 저축수요가 경기회복세와 함께 증가될 것이며 시중주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보험 등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한 연금보험판매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적립식 펀드의 열풍, 은행의 수익구조 다양화 노력 등으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FY2005의 생존보험 실적은 전통 연금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보험의 큰 폭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14.1% 성장한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4월초 955p였던 KOSPI 지수가 8월 1,102p로 146p 증가하면서 시중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노후자금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으로 물리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수요도 증가시키고 있음.

## 2) 사망보험

- FY2006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금년 대비 4.2% 성장하여 29조 6천억원대에 이르렀으나, 개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0%로 2년 연속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전통적인 종신보험 시장의 성장이 둔화가 지속되고 CI보험, 건강보험 등 기타 보장성 상품이 이를 대체하면서 사망보험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기대수명이 빠르게 연장되고 있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건강관련 보장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포화되고 있는 종신보험에서 CI보험 등의 질병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형 건강보험도 시판되면서 건강보험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나 공공건강보험의 보장률확대 정책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에는 불안요소가 존재함.
- FY2005 사망보험은 전통적 종신보험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CI보험 등

기타 보장성 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4-8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5.2%에 불과하나 기타 보장성보험이 성장하면서 전체 사망보험 성장률은 6.7%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함.

### 3) 생사혼합보험

- FY2006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연장(10년)된 이후 뚜렷한 성장동력을 상실했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저축성 수요를 대체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하면서 금년 대비 9.1% 성장한 11조 4천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은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의 연장전 가입분의 만기도래, 금리경쟁력 저하, 대부분 무배당으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유니버설 등이 전통적 생사혼합보험의 투자메리트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성장에 따라 당분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 FY2005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유니버설의 폭발적 증가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0조 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저축성보험에 대한 메리트 상실과 2001년 5년만기 계약분 보유계약의 만기도래 등의 영향으로 전통생사혼합보험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2003년 7월 판매되기 시작된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추가상승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생사혼합보험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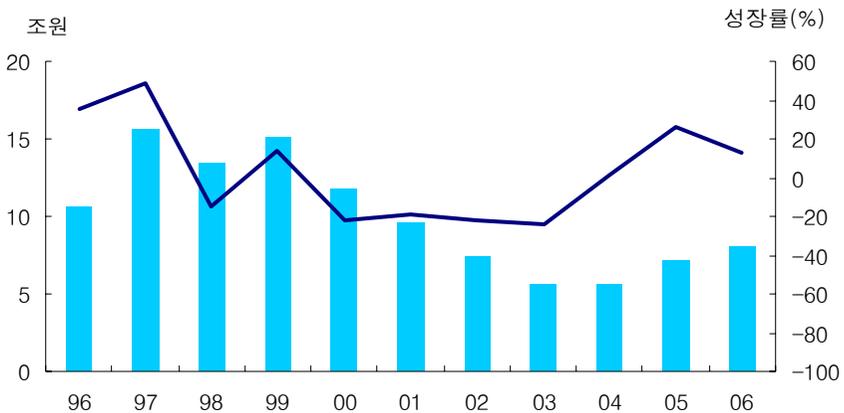
나) 단체보험

○ FY2006 단체보험시장은 퇴직연금제도가 정비되면서 퇴직연금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단체보험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복지수요의 회복으로 증가가 전망되나 FY2005보다는 상승률 하락이 예상됨.

- 2005년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초기 제도미비로 인한 부진을 벗어나고 퇴직보험은 신규판매가 중단되나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기업의 퇴직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2005년 경기의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복지성 보험수요가 살아나고 또한 공공부문의 일반단체보험 가입추세도 이어지고 소득보상보험 등 신상품의 성장 가능성도 있어 퇴직관련 상품의 성장과 함께 증가세가 전망됨.

<그림 IV-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FY2005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5.8% 증가한 7조 2천억원 규모로 추정됨.
  -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신탁)의 신규가입이 금지되고 퇴직연금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의 마련이 늦어지고 보험회사들의 판매시기가 늦어지면서 12월 결산법인들의 퇴직연금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 실시에 불안을 느낀 기업들이 퇴직보험가입을 서두르면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8월말 전년대비 103.0%증가)했으며, 3월 결산법인에 의한 퇴직연금의 신규가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나. 지급보험금 전망

- FY2006의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은 단체보험의 환급금이 증가하고 개인보험도 사망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0% 증가한 35조 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FY2005의 총지급보험금은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로 반전하고 단체보험도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8.1% 증가한 34조 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IV- 8>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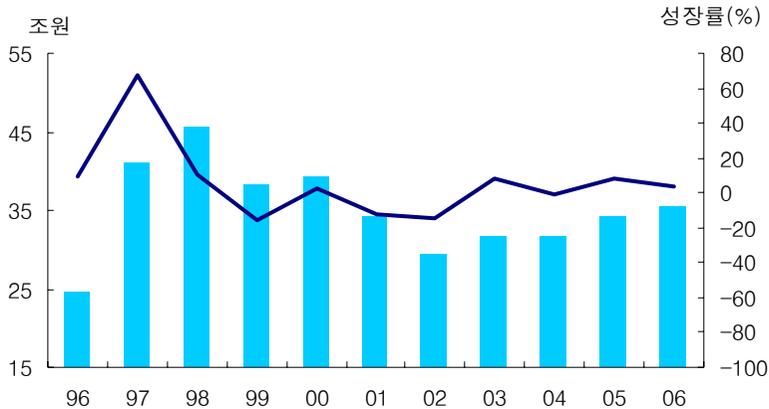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264,082	-3.0	192,458	38.0	456,540	10.9
FY1999	215,870	-18.3	167,179	-13.1	383,049	-16.1
FY2000	224,551	4.0	167,919	0.4	392,471	2.5
FY2001	226,683	0.9	116,231	-30.8	342,914	-12.6
FY2002	212,197	-6.6	81,983	-29.5	294,180	-14.4
FY2003	255,554	20.4	61,840	-24.6	317,394	7.9
FY2004	267,067	4.5	49,159	-20.5	316,226	-0.4
FY2005(E)	292,372	9.5	49,592	0.9	341,964	8.1
FY2006(F)	299,794	2.5	55,950	12.8	355,744	4.0

○ FY2006 개인보험부문의 총지급보험금 규모는 생사혼합보험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사망보험은 지급보험금증가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FY2005 대비 2.5% 증가한 30조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환급금 증가와 5년짜리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FY2005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임.
-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도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금의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겠으나 실효·해약이 감소함에 따라 FY2005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임.
- 생존보험의 경우 경기호전 및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의식 제고로 연금상품의 실효·해약률이 감소함에 따라 지급보험금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그림 IV-5>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



○ FY2005 개인보험 총지급보험금은 FY2005 지급보험금 증가에 대한 상대적 축소와 계약유지율 상승으로 지급보험금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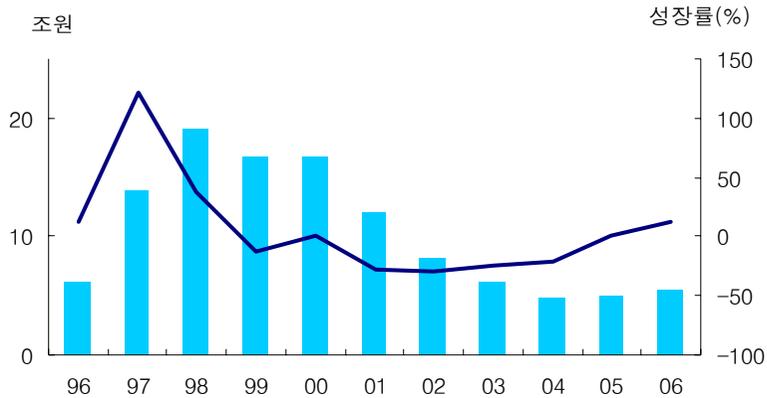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2001년 1월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기 전 판매된 보험상품들의 만기도래에 의한 보험금지급이 증가할 것이나 변액보험 등의 신계약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임.
- 생존보험의 경우 은퇴수요에 의한 신계약증가와 유지율제고로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표 IV-9>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8	147,104	-25.3	29,879	70.9	87,099	50.4	264,082	-3.0
FY1999	75,019	-49.0	30,025	0.5	110,826	27.2	215,870	-18.3
FY2000	71,612	-4.5	36,040	20.0	116,898	5.5	224,551	4.0
FY2001	64,238	-10.3	46,263	28.4	116,182	-0.6	226,683	0.9
FY2002	52,623	-18.9	55,419	19.8	104,155	-10.4	212,197	-6.6
FY2003	60,712	15.4	74,666	34.7	120,177	15.4	255,554	20.4
FY2004	73,135	20.5	91,553	22.6	102,379	-14.8	267,067	4.5
FY2005(E)	76,772	5.0	100,052	9.3	115,547	12.9	292,372	9.5
FY2006(F)	77,089	0.4	103,731	3.7	118,975	3.0	299,794	2.5

- FY2006 단체보험 총지급보험금은 단체연금제의 조기정착이 늦어질 가능성을 내포함에 따라 환급금은 줄어들겠으나 퇴직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FY2005 대비 12.8% 증가한 5조 6천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5 단체보험 경우 퇴직연금제의 도입이 늦어지고 기업들이 퇴직연금가입을 관망하면서 퇴직보험의 유지율이 증가하면서 환급금감소로 총지급보험금은 FY2004 대비 0.9% 증가한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제의 후속제도정비가 늦어지고 보험사들의 판매일자가 지연됨에 따라 퇴직연금판매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퇴직보험에 대한 전환 및 해약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면서 단체보험환급금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그림 IV-6>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 총지급보험금은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나 FY2006의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증가로 전년대비 2.3%p 개선된 53.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5의 보험금지급률은 생사혼합보험의 환급금의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도 소폭 증가하겠으나 수입보험료증가로 전년대비 2.8%p 개선된 56.1%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IV-1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지급률	75.9	72.5	60.0	63.0	58.8	56.1	53.8

### 3. 손해보험

#### 가. 개관

- FY2006 손해보험 산업은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이 꾸준한 성장하여 전년 대비 7.2%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 FY2005에도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등 전통 손해보험 종목에서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장기손해보험 및 특종보험에서는 성장률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1)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 FY2006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전년 대비 7.2% 성장하여 원수보험료 27조 2,9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의 둔화,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정비수가 체계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4%대의 성장이 예상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지속에 따라 보험료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며 사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자 사고율 증가, 보상한도 확대 및 차량의 고급화로 인한 대당 손해액 증가로 상승할 것임.
-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보험 등 상해, 질병 부문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저축성보험의 판매 확대가 예상되어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로 전망됨.

- 손해율은 보장성 부문의 지급보험금 증가 및 저축성보험료 적립금 확대에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 외에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에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다소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보증보험은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지속 및 보증보험회사의 인수 제한 등 언더라이팅 강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 성장은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 FY200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의 성장 확대에 9.7% 증가한 25조 4,707억원으로 예상된다.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부문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확대에 의한 급성장이 예상된다.
  - 반면, 자동차보험은 3%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제외한 종목에서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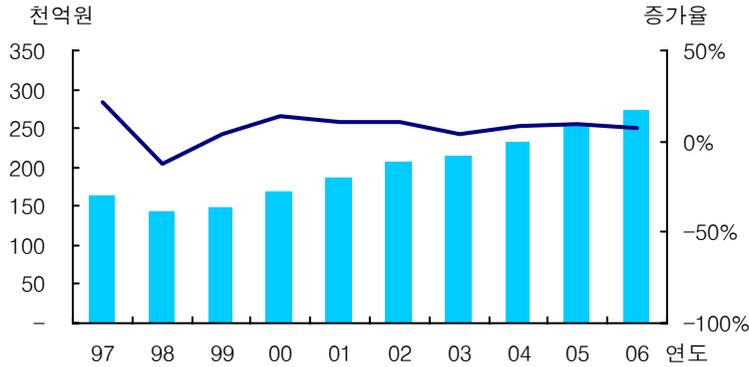
#### <표 IV-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보전체	168,617	186,959	206,129	213,783	232,189	254,707	272,930
	13.8	10.9	10.3	3.7	8.6	9.7	7.2
보증보험 제외	162,586	179,803	196,767	204,364	223,171	245,581	263,576
	14.2	10.6	9.4	3.9	9.2	10.0	7.3

- 주: 1) 해외원보험과 퇴직보험, 부수사업 실적 포함임.  
2) 하단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그림 IV-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2) 보험종목별 점유율

○ 보험종목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포함)이 50.5%, 자동차보험이 33.5%, 일반손해보험이 16.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크게 확대되고,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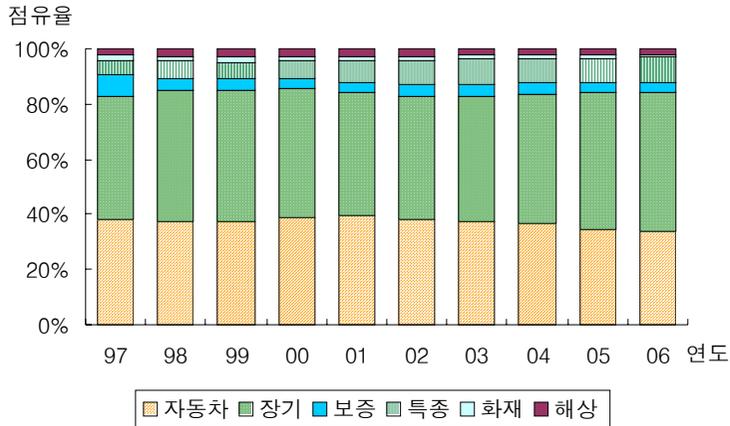
<표 IV-12>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일반	14.4	16.0	17.2	16.2	16.5	16.1	16.0
자동차	38.5	39.9	38.4	37.2	36.7	34.5	33.5
장기	47.1	44.1	44.4	46.5	46.8	49.4	5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일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장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이 포함됨.

&lt;그림 IV-8&gt;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 나. 보험종목별 전망

### 1)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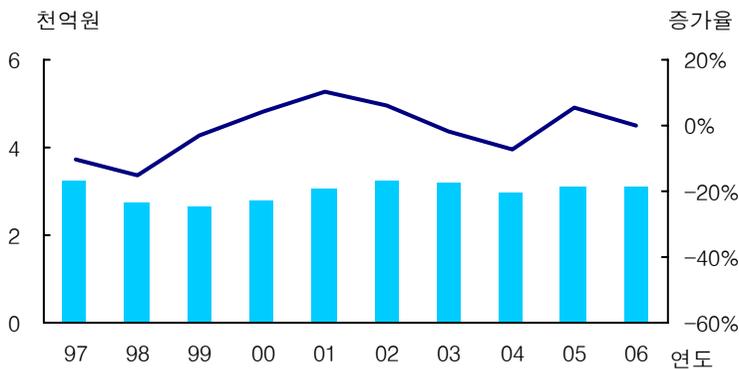
- FY2006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3,093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FY2005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가입 축소, 종합보험으로의 화재보험 수요 이전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폭의 효율인상요인과 개별할인할증 (SRP) 및 공지할인제도 재정비 등으로 5.5%의 성장이 예상됨.
- FY2006에는 일반 물건을 중심으로 효율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방카슈랑스 및 고객의 패키지화 선호 등에 따른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 건설 및 투자부문의 회복 불투명 등으로 화재보험 성장이 감소할 전망이다.

<표 IV-13>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2,755	3,035	3,219	3,160	2,937	3,099	3,093
증가율	4.1	10.2	6.1	-1.8	-7.1	5.5	-0.2

<그림 IV-9>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화재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성장 확대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다소 개선된 46.3%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FY2006는 화재보험 성장이 정체될 전망으로 51.2%의 손해율이 전망됨.

- FY2005의 경우 5%대의 보험료 성장이 전망되나, 겨울철 화재발생을 감안할 때 2005년 4~8월간 손해율보다는 약간 상승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FY2006에는 화재보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Y2005보다는 손해율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IV-14>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67.1	51.1	54.3	61.7	58.6	46.3	51.2

**<그림 IV-10>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

## 2) 해상보험

- FY2006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1% 성장한 5,495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전년보다 5.1% 성장한 5,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FY2005 수출증가율 둔화세, 보험료율 인하 조정으로 적하보험 성장이 급감하고, 항공보험이 해외 부보율이 증가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선박보험 성장으로 5.1%의 성장률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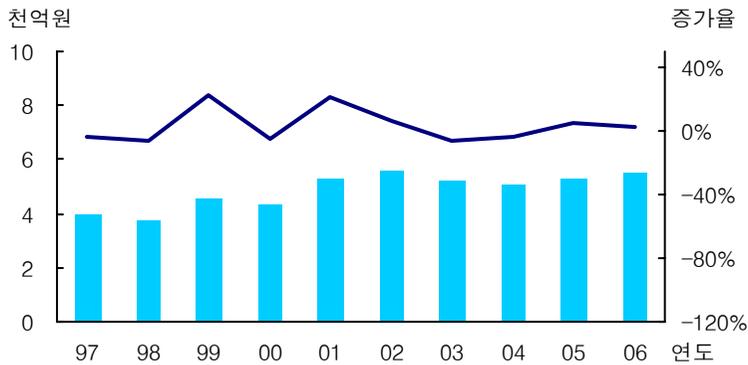
- FY2006에는 최근 해상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요율 인하조정, 수출증가율 정체 전망에 따라 FY2005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표 IV-1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5(F)
원수보험료	4,344	5,292	5,605	5,242	5,071	5,330	5,495
증가율	-5.0	21.8	5.9	-6.5	-3.2	5.1	3.1

<그림 IV-11>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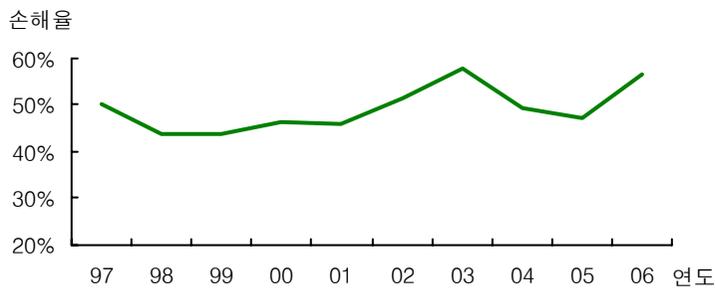


- FY2005 손해율은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성장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FY2006 해상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저성장세 전망에 따라 FY2005보다는 악화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FY2005 해상보험은 선박보험의 성장으로 전체 원수보험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FY2004에 비해 양호한 47.3%의 손해율이 예상됨.
- FY2006은 적하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을 비롯하여 전체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6.7%의 손해율이 전망됨.

**<표 IV-16>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46.4	46.0	51.6	57.7	49.5	47.3	56.7

**<그림 IV-12>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가) 적하보험**

- FY2006 적하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5% 성장한 2,225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는 -2.8% 성장한 2,306원으로 추정됨.
  - FY2005의 경우 적하보험 요율 인하와 FY2004 30%대를 기록하였던 수출증가율이 10%대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적하보험 보험료 수입은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FY2006에도 적하보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수출증가율도 전년 수준에서 큰 변화가 기대되지 않음에 따라 보험료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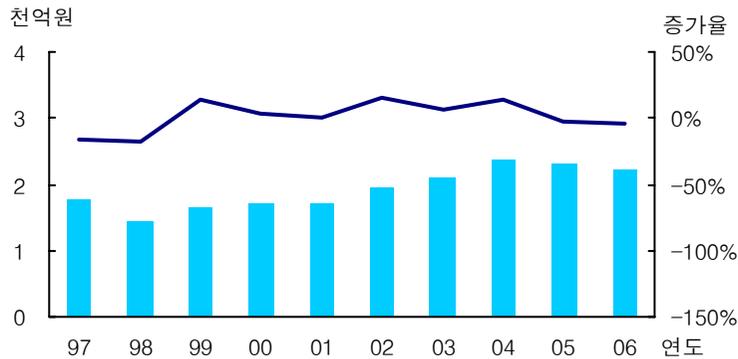
<표 IV-17>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704	1,704	1,963	2,096	2,373	2,306	2,225
증가율	3.3	0.0	15.3	6.8	13.2	-2.8	-3.5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IV-13> 적하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나) 선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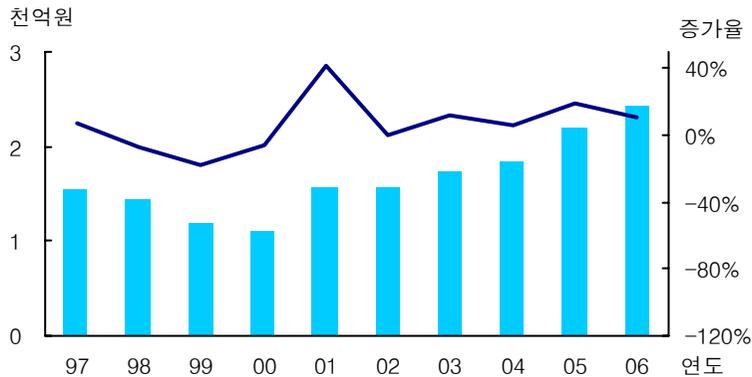
- FY2006 선박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431억 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의 경우 19.3% 증가한 2,205억 원으로 추정됨.
- FY2005 선박보험 기본보험료가 7% 정도 인상되고, 최근 보험 가입물건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IV-18>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112	1,572	1,566	1,744	1,848	2,205	2,431
증가율	-6.4	41.4	-0.4	11.4	6.0	19.3	10.2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IV-14> 선박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다) 항공보험

- FY2006 항공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640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는 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률이 예상됨.

- FY2005 항공보험은 해외재보험시장의 연성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물건의 해외 부보율이 증가함에 기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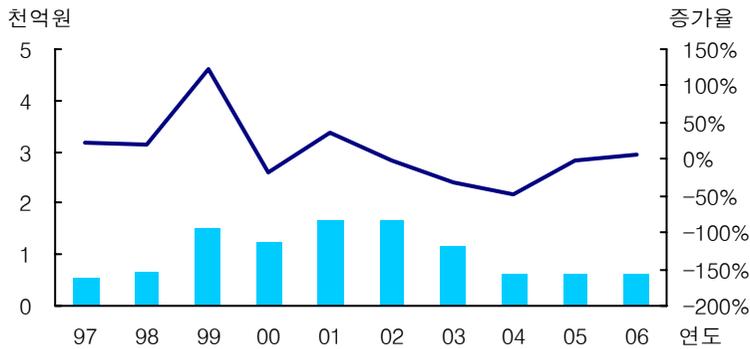
<표 IV-19>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223	1,677	1,666	1,155	615	608	640
증가율	-18.1	37.1	-0.7	-30.7	-46.8	-1.0	5.1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

<그림 IV-15> 항공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3) 자동차보험

- FY200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4.1% 성장한 9조 1,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0% 성장한 8조 7,764억원으로 추정됨.

- FY2005 자동차보험 성장률은 내수경기 회복지연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정체,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비수가 요금체계 개선 효과로 인하여 3%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11월부터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으로 회사별로 평균 3.5%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음.
- FY2006 자동차보험은 FY2005 성장을 약간 상회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최근 교통법규 위반 사면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요율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 지속 전망 등은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내수회복 및 2006년 특소세 인하조치 환원으로 인한 신차판매 증가, 차량의 고급화, 2005년 11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요율 인상 등으로 4.1%의 성장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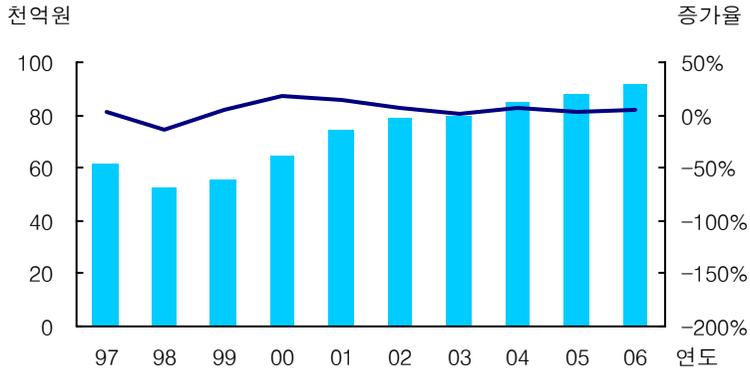
**<표 IV-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책임 보험	보험료	23,553	27,508	28,230	27,544	30,210	31,595	33,073
	증가율	11.1	16.8	2.6	-2.4	9.7	4.6	4.7
임의 보험	보험료	41,430	47,093	50,908	52,062	54,998	56,169	58,290
	증가율	21.3	13.7	8.1	2.2	5.6	2.1	3.8
합계	보험료	64,983	74,601	79,138	79,606	85,208	87,764	91,364
	증가율	17.4	14.8	6.1	0.6	7.0	3.0	4.1

주: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1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하였음.

<그림 IV-16>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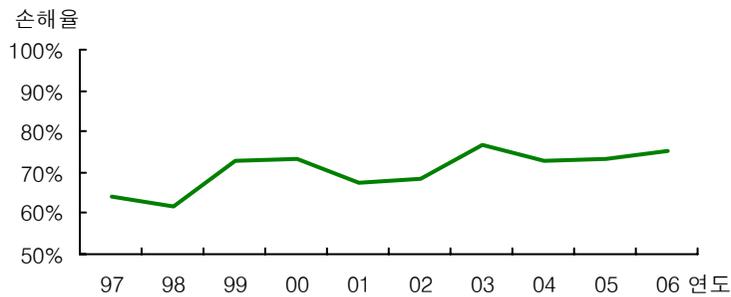


- FY2005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율 증가, 보험료 성장 둔화로 인하여 FY2004보다 다소 상승한 73.5%, FY2006에는 75.1%의 손해율이 전망됨.
  - FY2005 손해율은 교통법규 위반 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 원수보험료 저성장에 기인하여 FY2004보다 악화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FY2006에는 정비수가체제 개선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지속으로 보험료 성장둔화가 전망되고, 보상한도 확대 및 차량의 고급화 등으로 대당 손해액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손해율은 75.1%로 상승할 전망이다.

**<표 IV-21>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73.2	67.6	68.4	76.7	72.7	73.5	75.1

**<그림 IV-17>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 4) 보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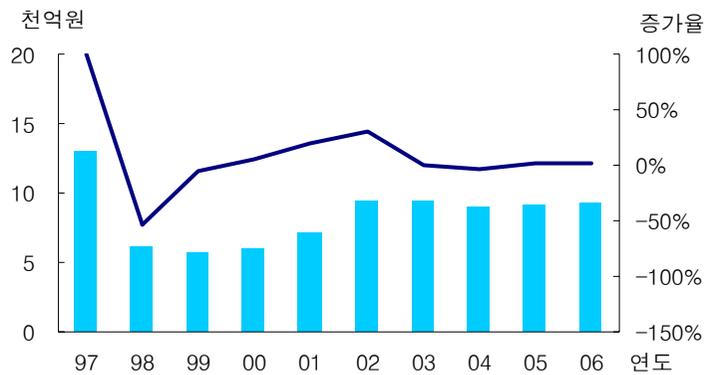
- FY2006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2.5% 성장한 9,354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1.2% 증가한 9,126억원으로 추정됨.
  - FY2005 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등에서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FY2002까지 급증하였던 신용카드 신용보험 성장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1.2%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됨.
  - FY2006에도 신용보험 및 대출관련 보증보험에서의 성장 둔화와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보증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에 따른 인수 제한 등으로 보증보험 성장률은 크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 반면, 2005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회복세로 보증보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22>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6,021	7,156	9,362	9,419	9,018	9,126	9,354
증가율	4.9	18.9	30.8	0.6	-4.3	1.2	2.5

<그림 IV-18> 보증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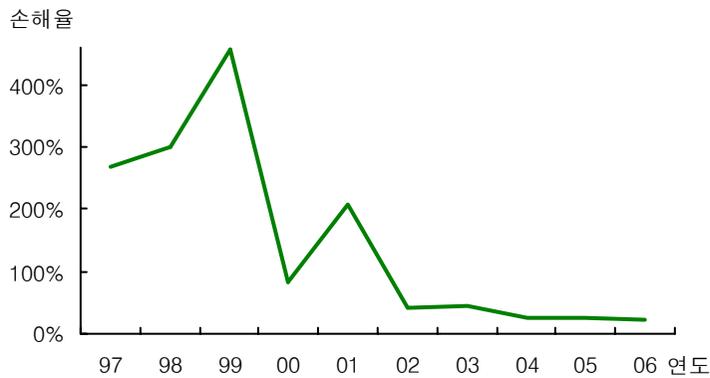


- FY2005 보증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성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성 보증의 공급을 축소하고 이행성보증 판매를 확대하는 등 보험인수물건을 제한하는 언더라이팅 정책으로 25.7%의 양호한 수준이 예상됨.
- FY2006에도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등으로 보험료 성장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손해율은 23.1% 수준으로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lt;표 IV-23&gt;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79.5	208.3	42.0	44.1	25.3	25.7	23.1

&lt;그림 IV-19&gt;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



### 5) 특종보험

- FY2006 특종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9.3% 증가한 2조 5,720억원으로 기술, 책임, 상해, 종합보험 등 특종보험 시장 전 종목에 서의 고른 성장세가 예상됨.
  - 특종보험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종합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의 수요 이전, 방카슈랑스를 통한 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전망이다.
  - 기술보험의 경우,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부문의 회복세 전환 전망이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에서 과거 손해율 개선에 따른 요율인하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FY2005보다 다소 성장이 감소할 것임.

- FY2005 원수보험료는 소비둔화,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에서의 높은 성장과 방카슈랑스로 인한 종합보험 확대 등으로 11.1% 증가한 2조 3,532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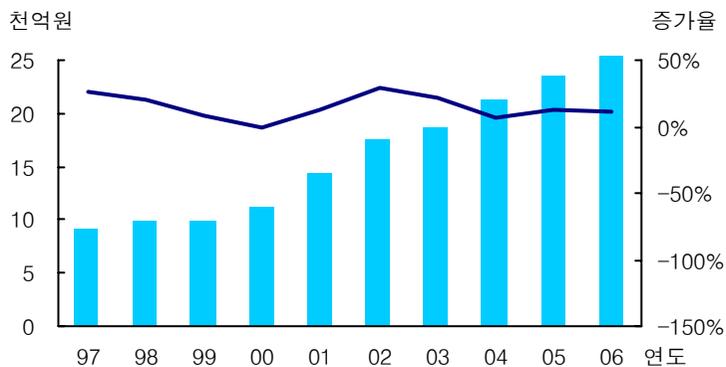
**<표 IV-24>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1,143	14,430	17,484	18,740	21,818	23,532	25,720
증가율	13.1	29.5	21.2	7.2	13.0	11.1	9.3

주: FY1998~FY2000은 해외원보험, FY2001 이후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포함 실적임.

**<그림 IV-20>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특종보험 손해율은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른 원수보험료 성장 전망으로 46.3%의 손해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 FY2006에는 종합보험, 상해보험 중심으로 보험료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형 재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40.5%의 양호한 손해율을 보일 것임.
- 단,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 특종보험 일부 종목에서의 보험료 인하요인 발생 등 손해율 상승요인도 내재되어 있음.

**<표 IV-25>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56.8	53.8	47.5	57.8	52.0	46.3	40.5

**<그림 IV-21>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



가) 기술보험

- FY2005 기술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3.8% 성장한 3,184억원으로 추정되며, FY2006에는 13.7% 성장한 3,620억원으로 당분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Y2005에는 민자사업의 확대에 대형 공사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

공사보험 원수보험료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기술보험 전체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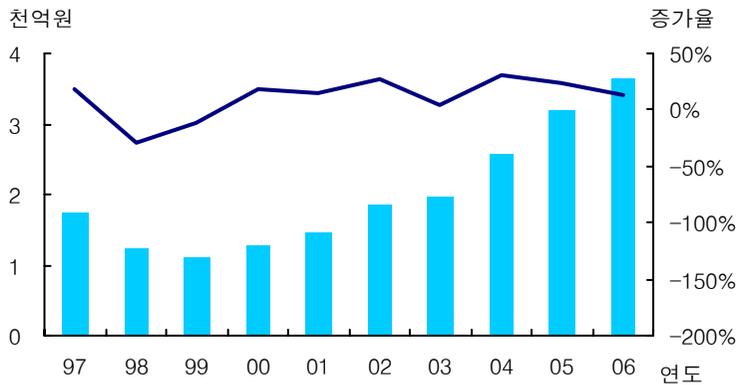
- FY2006에도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가 2005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건설투자 증가율 확대 전망으로 기술보험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표 IV-26>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277	1,473	1,872	1,962	2,572	3,184	3,620
증가율	17.6	15.3	27.1	4.8	31.1	23.8	13.7

<그림 IV-22>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나) 배상책임보험

- FY2006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4% 성장한 5,554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0.5% 성장한 5,269억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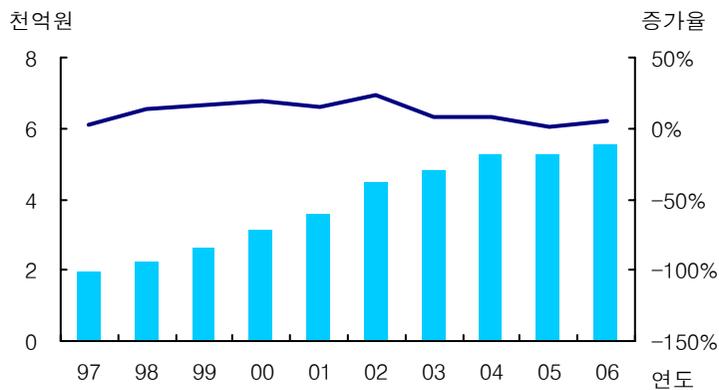
- FY2005에는 2005년 1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임원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꾸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 종목에서 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전년대비 0.5%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FY2006에는 2005년 하반기 이후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투자부문의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어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소폭 증가한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27>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3,131	3,602	4,468	4,835	5,243	5,269	5,554
증가율	19.6	15.0	24.0	8.2	8.4	0.5	5.4

**<그림 IV-23>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다) 상해보험

○ FY2006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849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전년 대비 47.6% 급성장한 4,15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FY2005 상해보험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른 수요 창출과 함께 기업들의 단체 가입 확대 등 다양한 성장 요인으로 인하여 47.6%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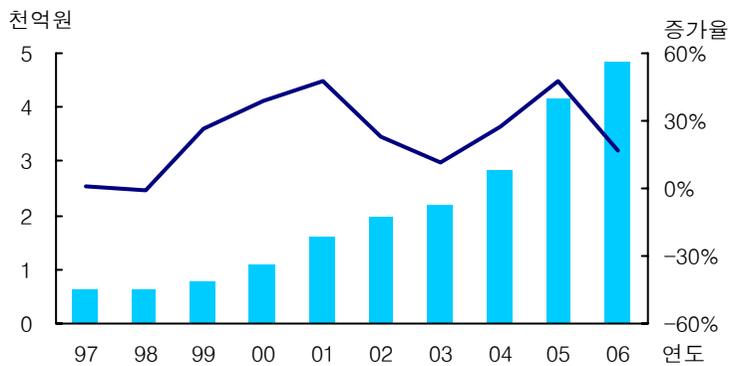
- 상해보험의 성장 기조는 FY2006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FY2005년 급성장에 따른 상대적 효과로 성장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IV-28>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1,097	1,623	1,991	2,216	2,818	4,159	4,849
증가율	39.0	47.9	22.7	11.3	27.2	47.6	16.6

<그림 IV-24>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라) 종합보험

○ FY2006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1조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9,436억 원으로 추정됨.

- FY2005 종합보험은 증가하는 패키지형 보험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고,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기업성 종합보험 시장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5.1%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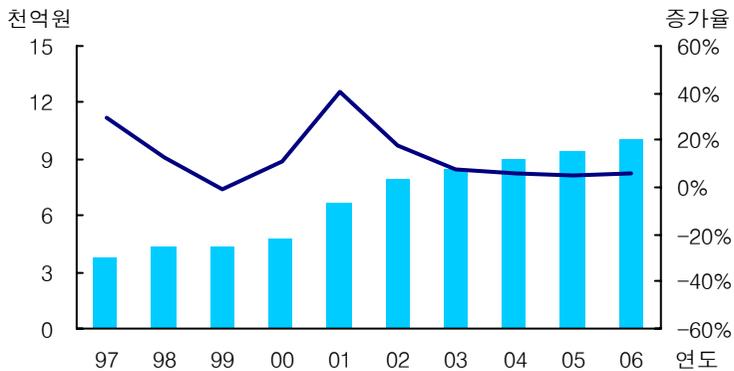
- FY2006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에서의 수요가 이전되는 등 재물성 종합보험 성장이 지속되고,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보험가입의 확대로 종합보험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표 IV-29>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4,763	6,701	7,874	8,477	8,977	9,436	10,030
증가율	10.9	40.7	17.5	7.7	5.9	5.1	6.3

<그림 IV-25>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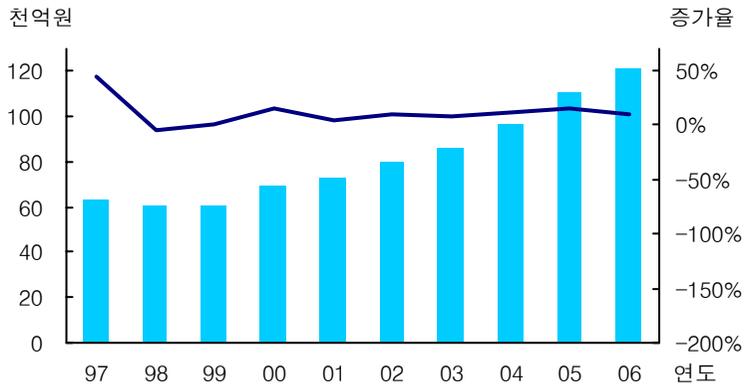
6) 장기손해보험

- FY200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10.1% 증가한 12조 1,512 억원, FY2005에는 14.6% 성장한 11조 393억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FY2005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및 질병부문에 대한 수요지속과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로 1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FY2006에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전망이 장기손해보험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통합형보험, CI보험을 중심으로 한 상해 및 질병부문의 꾸준한 확대가 예상되고, 저축성보험의 신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표 IV-30>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69,392	72,882	80,134	85,794	96,353	110,393	121,645
증가율	15.1	5.0	10.0	7.1	12.3	14.6	10.2

**<그림 IV-2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5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 지속 성장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부문 가입확대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와 저축성보험 판매에 따른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확대로 86.3%의 손해율이 전망됨.
- FY2006에는 보장성 부문의 보험금 지급과 저축성보험료 적립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할 전망에 따라 손해율은 88.2%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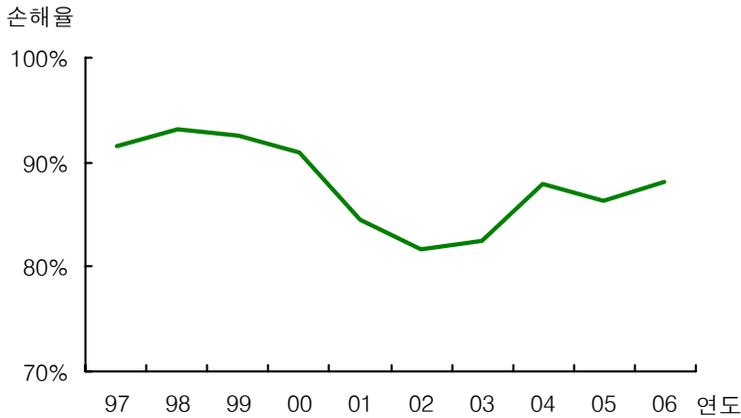
**<표 IV-31>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

(단위 :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손해율	90.9	84.4	81.6	82.4	87.9	86.3	88.2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V-27>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7)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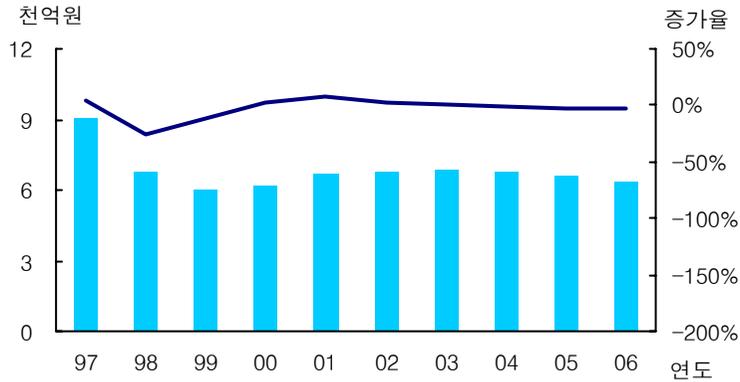
○ FY2006 개인연금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6,331억원으로 전망되며 FY2005에는 -3.5% 증가한 6,561억원으로 추정됨.

-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단기성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한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개인연금보험의 성장은 향후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표 IV-32>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6,157	6,678	6,786	6,873	6,799	6,561	6,331
증가율	1.9	8.5	1.6	1.3	-1.1	-3.5	-3.5

**<그림 IV-28>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추이**

○ FY2006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조 62억원의 원수보험료가 전망되며, FY2005는 전년 대비 58.3% 증가한 8,902억원이 예상됨.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퇴직보험의 보험료 이전과 더불어 신규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행초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손해보험의 점유율은 크게 전망되지 않음에 따라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표 IV-33>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E)	FY2006(F)
원수보험료	3,823	2,865	4,401	4,949	5,622	8,902	10,062
증가율	5.5	-25.1	53.6	12.5	13.6	58.3	13.0